〈논문 심사판정기준*〉

심사위원 1	심사위원 2	최종 판정
무수정 게재	무수정 게재	무수정 게재
무수정 게재	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
무수정 게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
무수정 게재	게재 불가	심사위원 3 심사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
수정 후 게재	게재 불가	심사위원 3 심사
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
수정 후 재심	게재 불가	게재 불가
게재 불가	게재 불가	게재 불가

- ① 각 심사위원은 제20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무수정 게재, 수정 후 게재, 수정 후 재심, 게재 불가의 네 가지 평가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.
- a. 무수정 게재 : 투고논문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에 있어서 편집위원회의 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
 - b. 수정 후 게재 : 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.
 - c. 수정 후 재심사 : 연구의 내용이나 연구방법론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어 논문의 대폭 수정 후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.
 - d. 게재 불가 :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학술지의 학문적 기준에 미흡하여 게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.
- ② 2명의 심사위원 모두 ‘무수정 게재’ 판정을 내렸을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부의한다.
- ③ 2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내리거나, 각각 ‘게재 불가’ 와 ‘수정 후 재심’ 판정을 내렸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.
- ④ 1명의 심사위원이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내리고, 다른 1명의 심사위원이 ‘무수정 게재’ 또는 ‘수정 후 게재’ 판정을 내렸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1명의 제3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 부의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.
- 심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‘수정 후 게재’ 또는 ‘수정 후 재심’ 등급을 부여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로부터 수정 논문과 수정사항 답변서(수정내역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사유 기재)를 제출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한다.
- 2차 심사의 경우 1차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며, 결과는 무수정 게재, 수정 후 게재,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해야 한다. 단, 1차 심사에서 ‘수정 후 재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, ‘무수정 게재’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재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최종 판정은 1, 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, 게재 대상 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‘수정 후 게재’ 이상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한다.

*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